

방통위, 제16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

- 시청자 권익보호 및 미디어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김홍일, 이하 ‘방통위’)는 2월 27일(화) 이상인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6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.

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「방송법」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시청자 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또한, 전 국민 미디어 활용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및 미디어 접근권 확대 등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미디어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제16기 위원은 언론계, 교육·문화계, 법조계, 시청자단체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, 임기는 1년('24.2.27~'25.2.26)이다. 위촉식은 3월 중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첫 회의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.

방통위는 시청자 권익증진과 전 국민 미디어 역량향상을 위해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
< 시청자권익위보호위원회 위원(총 9인) >

구 분	성 명	현 직
위원장	이상인	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
방송 등 언론계	최윤정	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·미디어학부 교수
	김종영	前)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진흥본부장
교육·문화계	김동원	윤당아트홀 대표
	정현선	경인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
법조계	강경국	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
	송재원	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
시청자 단체	윤 명	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
	이금노	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

끝.

담당 부서	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성욱 (02-2110-1450)
		담당자	사무관	오형권 (02-2110-1294)

